

“한 번 로그인으로 7개몰 프리패스”... ‘롯데 ON’ 서비스

〈유통채널〉

롯데쇼핑(주)

지난해 출범 e커머스 프로젝트 ‘첫 발’ 2020년 상반기 ‘롯데ON 앱’ 오픈 예정

롯데쇼핑이 ‘롯데 ON’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롯데 e커머스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디딘다. 지난해 8월 ‘롯데e커머스사업본부’를 출범하고 2020년까지 계열사별 온라인몰을 통합하겠다는 발표 이후 첫 결과물이다.

4월 1일 런칭하는 ‘롯데 ON’ 서비스는 별도의 ‘앱’이 아닌 각사 온라인 몰간 이동경험을 제공, 가교 역할을 하는 통합 로그인 서비스로써 단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롯데 유통 7개사(백화점, 마트, 슈퍼, 홈쇼핑, 하이마트, 룩스, 닷컴)의 온라인 몰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우선, 통합 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7개의 온라인 몰간 이동이 편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롯데백화점의 앱(엘롯데)과 롯데하이마트의 앱에서 구매하는 상품에 맞춰 각각의 앱마다 별도 로그인



롯데ON.

/롯데쇼핑

이 필요했지만, 4월 1일 이후부터는 ‘엘롯데’ 앱에서 1회의 로그인 후 앱 화면 우측 상단의 ‘ON 몰 이동’ 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롯데하이마트 웹 페이지’로 이동해 별도 로그인 없이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하다.

‘롯데ON’ 서비스 도입 이후부터는 7개사 온라인 몰에 통합검색기능이 지원



롯데ON.

/롯데쇼핑

된다.

검색창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하면 해당 판매상품 외에도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되는 상품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또한, 본인이 검색했던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社별 온라인몰에서 제공하는 관련 상품도 추천 받을 수 있다.

롯데의 이러한 시도는 향후 출시 예정인 ‘통합 앱’의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

2020년 상반기 오픈 예정인 ‘롯데 ON

앱’은 롯데 유통 7개사의 모든 상품을 쇼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3800만명의 국내 최대 멤버스 회원과 1만1000여개의 오프라인 채널, 2000만개에 육박하는 상품 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O4O(Online for Off-line) 채널 구축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롯데 ON 앱’을 통해 향후 차별화된 AI 플랫폼 기반의 미래 차별화된 구매방식으로 떠오르는 보이스크머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구매 성향 분석기술과 상품데이터를 접목시

킨 AI 쇼핑 어드바이저 ‘샬롯(Chalotte)’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롯데 ON 서비스’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들은 공식 오픈일인 4월 1일부터 한 달간 롯데유통부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인 ‘롯데를 켜세요 롯데 ON 반값 ON’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4월 1일부터 7일간 7개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하와이 한달 살기’ 경품을 증정한다. 인기 여행지인 하와이에서 한 달간 지낼 수 있도록 항공권을 포함한 5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한다.

롯데e커머스 김경호 대표는 “이번에 선보이는 ‘롯데 ON’ 서비스는 내년에 출시될 온라인 통합 플랫폼에 앞서 고객 여러분들이 미리 사용해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롯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상품력과 보이스크머스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통업계는 미세먼지와 전쟁중... 실내공기 정화 ‘앞장’

미세먼지 관리 위한 공기 질 개선 박차 공조기 필터 전면 교체·대형 청정기 등

꽃샘 추위와 함께 잠시 주춤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유통업계가 들쭉날쭉하다. 업계는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초대형 공기청정기 도입, 공기 질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장을 찾는 고객은 물론,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점포 내 미세먼지를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등 국내 4대산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사내 공기질 TF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 다양한 사례 수집과 시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기질 개선책은 ▲공조기 필터 성능 강화 ▲공조기 내부 관리 ▲모든 출입구 에어커튼·흡입매트 설치 ▲공기질 측정센서 설치 ▲스마트 환기시스템 구축 총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기질 개선 방안을 강남점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점포에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사람의 폐 역할을 하는 공조기의 필터를 전면 교체한다. 신세계는 지난해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IFC를 부츠 미세먼지 행사.

/이마트

하반기부터 기존 3μm 이상 먼지를 흡착하는 기존 공조기 필터(Pre Filter)를 1μm 이상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필터(Medium Filter)로 교체했다.

여기에 국내 유통시설로는 최초로 0.3μm 분진까지 걸러낼 수 있는 전기필터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형 점포 기준 평균 100여대가 가동되고 있는 공조기 내부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강남점의 공조기 100여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미세먼지는 73%, 초미세먼지 62%에 달하는 저감율을 기록한 바 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에도 힘쓴다. 고객 출입구와 상품이 입고되는 검품장 등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매장은 물론 주차장 공기질 역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IFC몰은 L3층 사우스 아트리움에 초대형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오는 4월까지 대형 공기청정기 2대를 추가 설치해 ‘첨단 공기청정 시스템’ 도입에 앞장선다.

이번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캐리어 에어컨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높이 3.4m, 폭 2m의 대형 공기청정기로 990㎡(300평) 공간을 청정할 수 있다. 넓은 실내 공간의 공기를 빠르게 정화하기 위해 해파 필터를 포함한 3중 필터가 적용됐으며, 공기 흡입구에 설치된 먼지센서가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온·습도까지 체크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전면 스크린을 통해 미세먼지 청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몰을 이용할 수 있다.

4월 본격적인 행사를 앞두고 미세먼지 관련 상품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

이마트는 4월 17일 까지 봄맞이 실내 미세먼지 집중 케어를 위한 할인행사를 펼친다. 실내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무선청소기와 물걸레 청소포 등 청소용품 등을 최대 45%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이마트는 다이슨 V8(CF 플러피프로) 무선청소기와 디베아 건타입 무선청소기가 있다. 실내에 유입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보다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일회용 물걸레 전용 청소포도 대용량 상품을 기획해 가격을 낮췄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TV쇼핑 “이번달에도 ‘쇼! 극한혜택’ 만나요~”

고객 호평 잇따라... 이벤트 지속 결정

신세계TV쇼핑이 지난 3월에 첫 선을 보인 ‘쇼! 극한혜택’ 이벤트를 4월에도 이어간다.

‘쇼! 극한혜택’은 평일 저녁 8시 35분부터 9시 35분까지 홈쇼핑 판매 황금시

간대인 프라이م 타임에 방송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20%의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신세계TV쇼핑은 3월 ‘쇼! 극한혜택’ 이벤트에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져 4월에도 행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쇼! 극한혜택’ 방송 중 신세계TV쇼핑의 시청률은 방송 전 동 시간대에 비해 평균 30%가량 상승했으며, 행사 기간 매출 또한 당초 목표 대비 50%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어컨, 청소기 등의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가구, 패션, 화장품, 운동기구, 건강식품, 주방용품 등 혜택 대상이 여러 상품으로 확대됐다.

1일 저녁 8시 35분 첫 방송에는 3월에도 선봉에 섰던 캐리어 에어컨이 편성된다. 2일에는 시메오 에어프라이어, 3일에는 엘로엘 광광 박 선쿠션, 4일에는 삼성 파워봇 로봇청소기, 5일에는 로베라 파워워킹패드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스마트 편의점 전국 확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모델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수도권과 지방에 잇따라 오픈하면서 다양한 지역과 상권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된다.

세븐일레븐은 삼성 SDI 구미사업장(경상북도 구미시 소재)과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7, 8호점을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구미삼성SDI점’은 그 동안 롯데그룹 계열사 중심의 In-Office(인오피스) 상권에서 벗어난 대외 첫 In-Factory 상권 사례다. 삼성 SDI 구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24시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쇼핑 공간과 복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구미삼성SDI점’은 30평 규모로 시그니처 모델의 핵심 IT 기술을 모두 적용해 스마트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카페형 콘셉트로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수원컨벤션센터점’은 수원컨벤션센터 내에 23평 규모로 선보이는 로드샵 점포로 컨벤션센터 이용 고객 및 광고홍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4월에 삼성 SDI 청주사업장과 롯데첨단소재 여수사업장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구미삼성SDI점 /세븐일레븐